

# 전 고점에 도달한 유가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 원유 재고 감소, 감산 합의 연장 기대감에 유가는 상승  
5월 12일 이란 핵 협정 갱신 시한까지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기 힘들  
유가가 상승할수록 주목해야 하는 지표는 미국 산유량과 rig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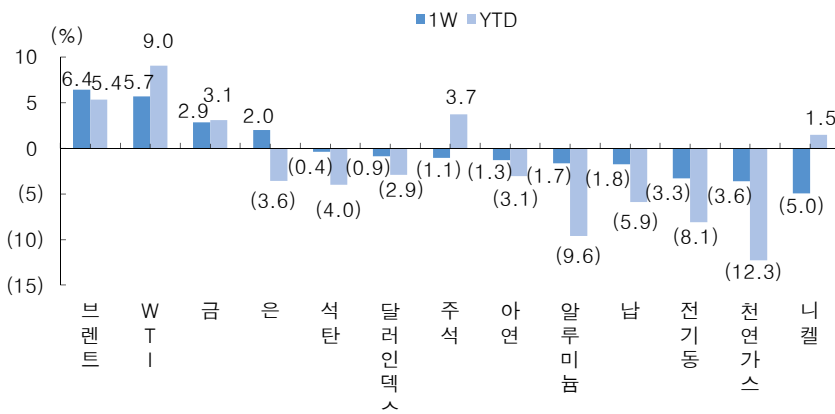
## 전 고점에 도달한 유가

지난주 유가의 주간상승률은 8개월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된 가운데 미국 원유 재고가 감소하고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감산 합의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사우디 왕세자가 트럼프와 회동을 가지고 트럼프의 외교 및 안보 인사들이 강경파로 교체되면서 사우디와 이란간의 군비 경쟁과 미국의 이란 핵 협정 파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란 핵 협정 갱신 시한이 5월 12일인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쉽사리 해소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유가가 전 고점에 도달했을 당시인 2월 초 유가 움직임을 살펴보면 미국 산유량 급증이 유가 급락을 야기했었다. 따라서 이번에도 미국 산유량과 rig 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유가와 금 가격은 상승세를 보인 반면 비철금속 가격은 하락

사우디와 이란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미국 원유 재고 감소, 감산 합의 연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유가는 상승세를 보였다. 게다가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금 가격 역시 급등했다. 반면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악화되고 수요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비철금속 가격은 하락했다.

[그림 1] 원자재 주간 수익률(3/19~3/23)



서태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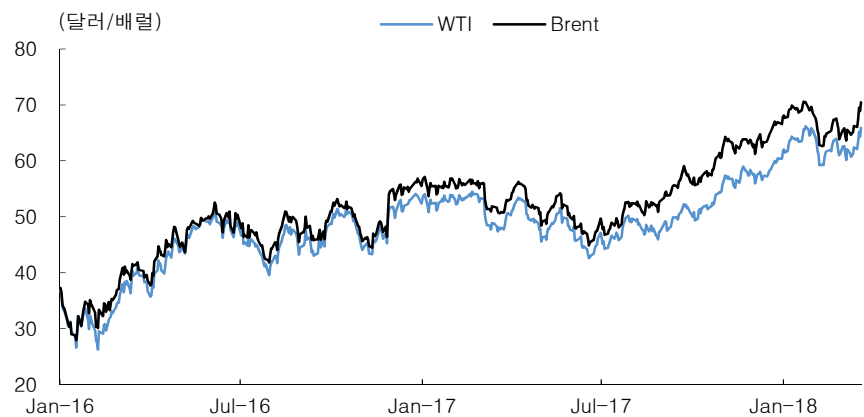
seotaejong@truefriend.com

지난주 유가가 급등하면서  
전고점 수준에 육박

## 유가가 상승한 이유

지난주 미국과 중국간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로 인해 글로벌 증시를 비롯한 비철 금속 가격이 급락했지만 이와 반대로 유가가 급등했다. 지난주 금요일 WTI는 배럴당 65.88달러에 마감했으며 Brent는 70.45달러에 마감했다. 이는 지난 1월 26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당시 WTI는 배럴당 66.14달러를 기록했으며 Brent는 70.52달러를 기록했다.

[그림 2] WTI와 Brent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지난주 유가가 급등한  
세 가지 이유

이처럼 지난주 유가가 급등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1)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미국에 방문한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었고, 2)미국 원유 재고가 감소하면서 수급 균형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높아졌으며 3)칼리드 알 팔리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감산 합의가 내년까지 연장될 수 있음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며 유가 상승세 주도

특히 최근 이란 핵 협정 문제를 두고 미국, 사우디, 이란의 입장차이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과 사우디가 이란의 핵 협정을 비난하면서 같이 이란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주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와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 이후 사우디와 이란간 군비 경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더욱 부각되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사우디 왕세자

지난주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는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가 구매할 미국산 군사장비들을 정리한 차트를 보여주며 미국에 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에 대해 감사의 표시를 나타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재임시절과는 달리 자신과 사우디 왕세자가 “짧은 기간에 매우 좋은 친구가 됐다”며 사우디와 우호적인 관계임을 드러냈다.

**사우디 왕세자는 ‘미 원자력법 12조’의 완화를 요구**

그리고 주요 외신에 따르면 사우디는 이 자리에서 ‘미 원자력법 123조’의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는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향후 20년간 원자력발전소 16기를 건설한다. 이를 앞두고 미국, 중국, 프랑스, 한국 등이 수주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사우디는 오는 4월 중 2~3곳의 예비 사업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미국에게 수주의 대가로 ‘미 원자력법 123조’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미 원자력법 12조’의 의미**

미 원자력법 123조란 미국의 원자력 기술을 사용하는 나라가 우라늄 농축(enriching uranium) 및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reprocessing plutonium)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즉, 이는 군사적인 용도로 핵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항이었다.

**사우디와 이란간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특히 지난 3월 15일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주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핵 개발을 할 경우 자국(사우디)도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언급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미 원자력법 123조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동에서 사우디와 이란 간 군비 경쟁(arms race)이 가속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대되었다.

**사우디와 미국은 이란 핵 협정을 비난**

게다가 이란 핵 협정에 대해 미국과 사우디는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 직전 사우디 왕세자는 이란 핵 협정을 “결함 있는 합의”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작년 10월 이란 핵 협정 준수 여부를 불인증한 이래로 핵 협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외교 및 안보 인사들이 강경파로 교체됨**

최근 미국의 외교 및 안보 인사들이 강경파로 교체되면서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해임하고 강경파인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후임으로 지명했으며 22일에는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해임하고 존 볼튼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를 후임으로 임명했다.

**이란 핵 합의 갱신 시한인 5월 12일을 앞두고 미국이 이를 탈퇴할 것이라는 우려**

특히 볼튼은 대표적인 강경파로 2015년 이란과 국제사회가 체결한 핵 협정이 쓸모 없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군사 행동으로 이란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따라서 오는 5월 12일로 예정된 이란 핵 합의 갱신 기한을 앞두고 미국이 결국 이를 파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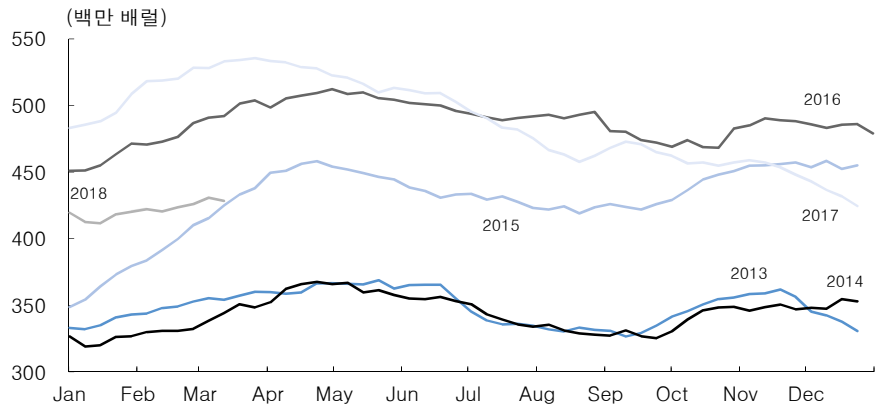
이를 감안했을 때 최근 부각된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적어도 이란 핵 협상 갱신 시한인 5월 12일까지는 사우디와 미국이 이란 핵 협상을 원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 위해 강경 노선을 이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란 역시 이에 반대하면서 원색적인 발언 등을 쏟아낼 가능성이 있다.

**양호한 수요에 힘입어 미국 원유 재고는 감소세**

**유가 급등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만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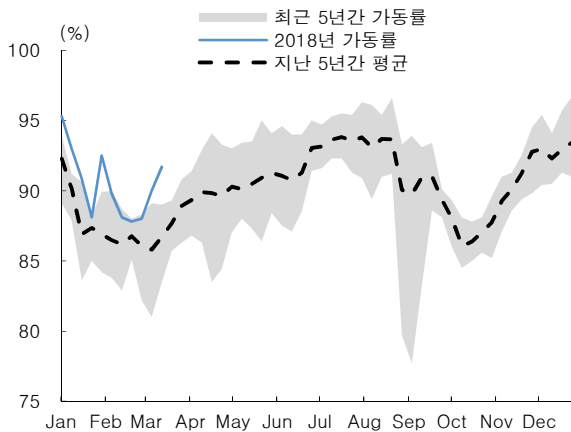
그러나 지난주 유가 급등이 지정학적 리스크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 원유 재고가 예상과는 달리 262만 배럴 감소하면서 수급 균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처럼 원유 재고가 감소한 이유는 양호한 수요를 바탕으로 과거보다 미국 정유시설의 가동률이 높게 유지되면서 정제하는 원유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림 3] 연도별 미국 원유 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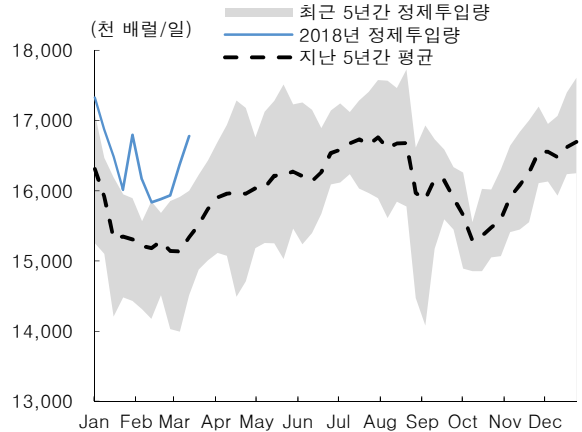
자료: EIA, 한국투자증권

[그림 4] 미국 정유시설 가동률



자료: EIA, 한국투자증권

[그림 5] 미국 정제투입량



자료: EIA, 한국투자증권

**사우디 에너지 장관은 감산 합의 연장 가능성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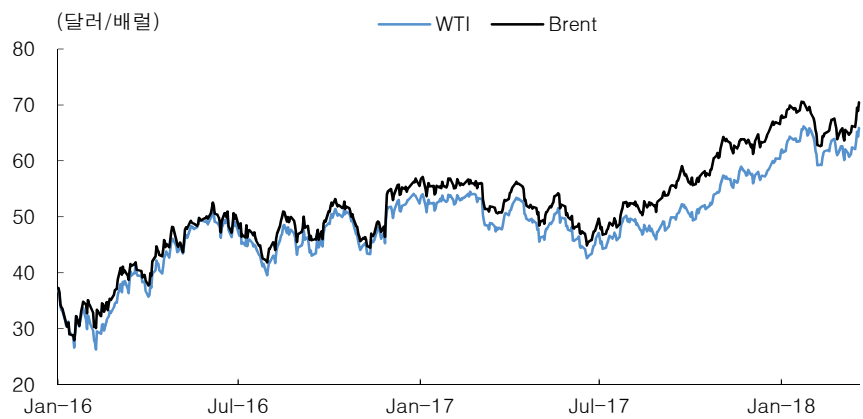
게다가 칼리드 알 팔리 사우디 에너지 장관은 OPEC 회원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비OPEC 국가들이 2019년에도 감산에 대해 협력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감산 합의는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지만 이를 내년까지 연장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전고점에 다다른 유가. 지난 2월 초 상승하던 유가가 급락했던 이유**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은 미국 산유량 증가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가는 지난주 급등으로 인해 1월 말에 기록했던 전 고점 수준에 도달했다. 당시를 돌아해보면 유가는 1월 말 고점을 기록한 뒤 2월 초에 급락했다. 지난 자료(“유가가 급락한 이유”, 2/12)에서 언급했듯이 2월 초 유가가 급락했던 이유는 두 가지였다. 1)미국 증시가 급락한 가운데 2)미국 산유량 및 rig 수 급증에 따른 미국발 공급 증가 우려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6] WTI와 Brent 는 전 고점 수준에 도달**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이번에는 미국 증시 급락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상승**

2월 초와 유사하게 이번에도 미국 증시가 급락했지만 유가는 오히려 상승세를 나타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된 가운데 미국 원유 재고가 감소하고 감산 합의 연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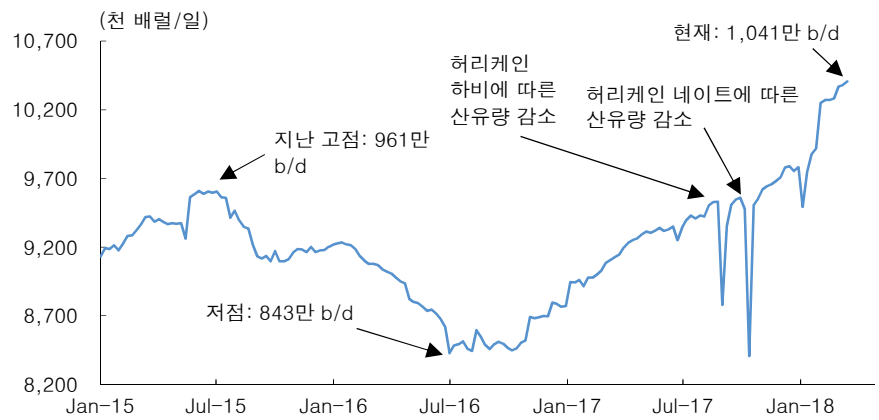
**결국 현 시점에서 유가의 추세적 상승 여부는 미국 산유량에 달려있음**

이를 감안하면 결국 현 시점에서 유가의 추세적 상승 여부는 다시 미국 산유량이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월 초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산유량이 급증하면서 미국발 공급 우려가 부각될 경우 유가는 다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 미국 산유량이 증가했음에도 그 폭은 2월 초와 비교시 크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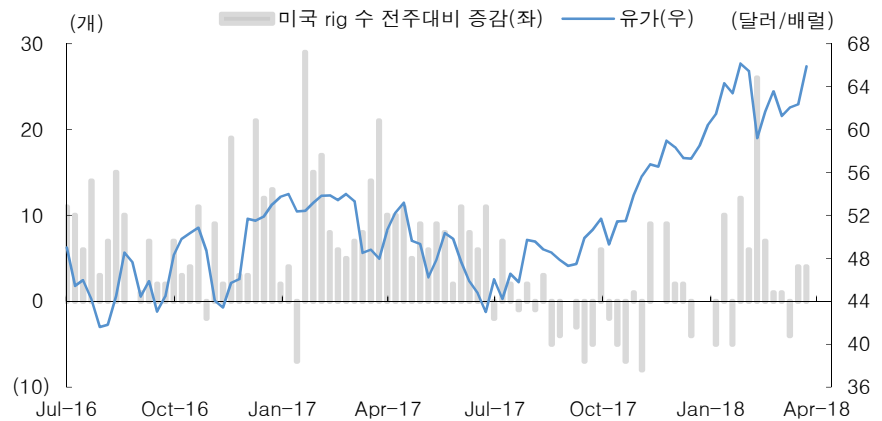
지난주에도 미국 산유량과 rig 수는 증가했지만 2월 초처럼 유가의 급락을 야기하지는 않았다. 산유량과 rig 수 증가 폭에서 큰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지난주 미국 산유량은 2.6만 b/d 증가했고 rig 수 역시 4개 증가한 반면 2월 초 유가 급락 당시에는 미국 산유량과 rig 수가 각각 33.2만 b/d, 26개 증가하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림 7] 미국 산유량



자료: EIA, 한국투자증권

[그림 8] 미국 rig 수와 유가



자료: Baker Hughes,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유가가 상승할수록 미국 산유량과 rig 수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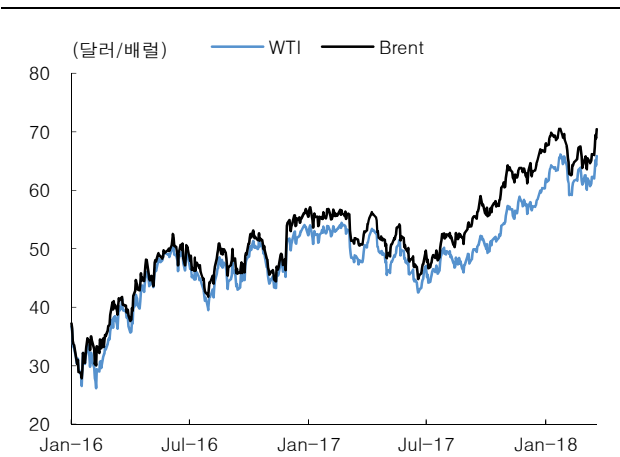
따라서 유가가 상승할수록 미국 산유량과 rig 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가 상승이 rig 수 증가와 미국 산유량 증가라는 결과로 귀결될 경우 유가 추세적 상승세를 담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 에너지: 지정학적 리스크, 감산 합의 연장 기대감에 유가는 상승

지난주 WTI 국제유가는 5.6% 상승하면서 주간 상승률이 8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가운데 이란 핵 협정을 ‘결함 있는 합의’라고 언급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파인 존 볼튼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으로 임명하면서 미국이 이란 핵 협정에서 탈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졌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유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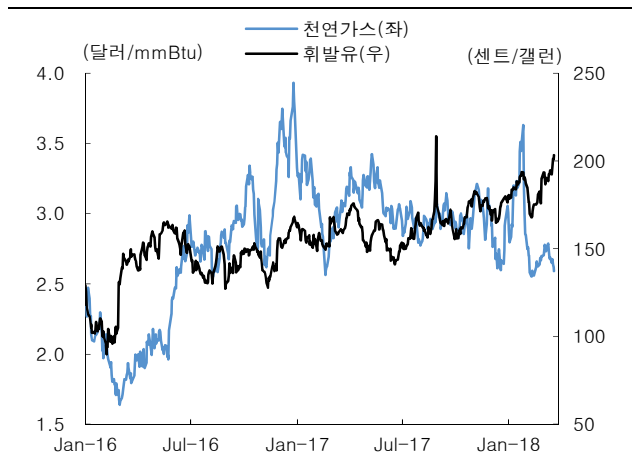
미국 원유 재고 감소와 감산 합의 연장에 대한 기대감 역시 유가 상승에 기여했다. 미국 원유 재고가 예상과는 달리 262만 배럴 감소한 가운데 칼리드 알 팔리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OPEC 회원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비OPEC 국가들이 2019년에도 감산에 대해 협력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감산 합의가 내년까지 연장될 수 있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림 9] WTI, Brent 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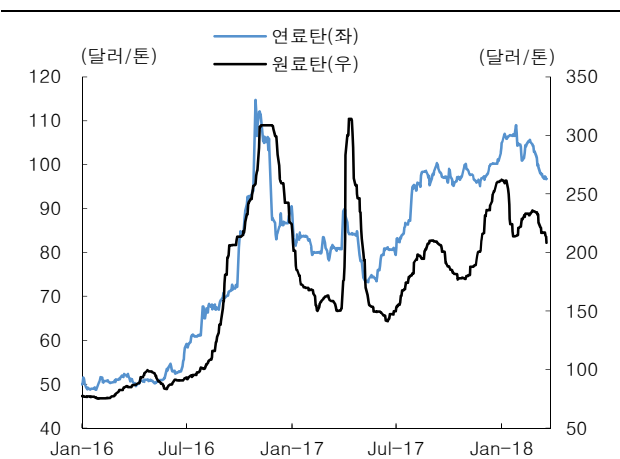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10] 천연가스, 휘발유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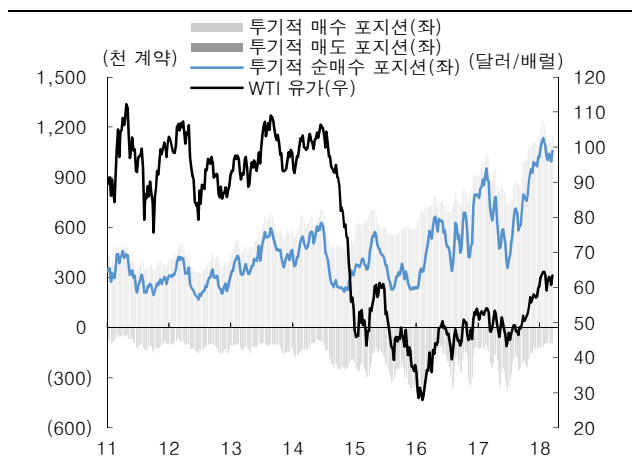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11] 석탄 가격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12] WTI와 Brent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미국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262만 배럴 감소했다. 휘발유(Motor Gasoline) 재고와 증류유(Distillate Fuel Oil) 재고 역시 각각 169만 배럴, 202만 배럴 감소했다. 가동률은 전주 대비 1.7%p 상승하며 91.7%를 기록했고 원유 생산은 1,040만 b/d로 전주 대비 3만 b/d 증가했다. 원유 수출은 157만 b/d로 전주 대비 8만 b/d 증가했다.

미국 원유 rig수는 지난 주 대비 4개 증가했다. 최근 저점에 비해서는 488개 증가했으며 전년도 수준과 비교시 152개 많은 수준이다.

〈표 1〉 미국 원유 재고 및 생산량

(단위: 천 배럴/일, %p)

구분	이번주 2018-03-16	지난주 2018-03-09	증감	4주 전 2018-02-16	증감	전년동기 2017-03-17	증감
원유 재고	428,306	430,928	(2,622)	420,479	7,827	533,110	(104,804)
휘발유 재고	243,065	244,758	(1,693)	249,334	(6,269)	243,468	(403)
증류유 재고	131,044	133,066	(2,022)	138,945	(7,901)	155,393	(24,349)
쿠싱지역 재고	29,423	28,518	905	30,003	(580)	67,951	(38,528)
원유 생산	10,407	10,381	26	10,270	137	9,129	1,278
원유 순수입	5,504	6,098	(594)	4,977	527	7,757	(2,253)
원유 수입	7,077	7,585	(508)	7,021	56	8,307	(1,230)
원유 수출	1,573	1,487	86	2,044	(471)	550	1,023
가동률	91.7	90.0	1.7	88.1	3.6	87.4	4.3

주: 증감은 이번 주 수치 대비 증감  
자료: EIA,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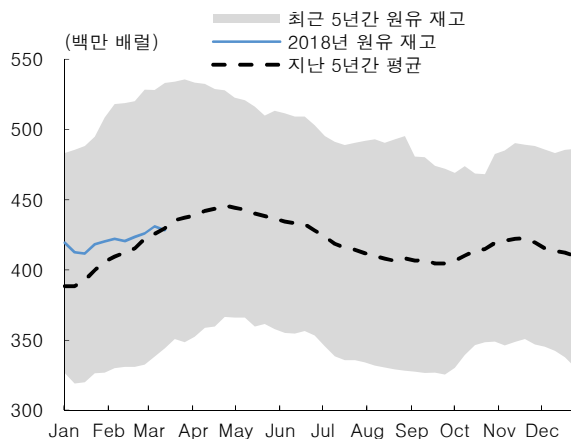
〈표 2〉 미국 rig 수 변화 추이

(단위: 개)

구분	이번 주 2018-03-23	지난 주 2018-03-16	4주 전 2018-02-23	전년동기 2017-03-24	고점 2014-10-10	최근 저점 2016-05-27
원유 재고	804	800	799	652	1,609	316
쿠싱지역 재고	-	4	5	152	(805)	488
원유 생산	190	189	179	155	1,606	81
가동률	-	1	11	35	(1,416)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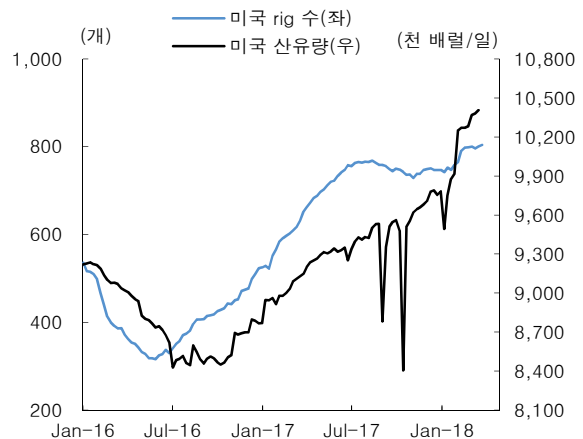
주: 증감은 이번 주 rig 수 대비 증감  
자료: Baker Hughes, 한국투자증권

[그림 13] 미국 원유 재고



자료: EIA,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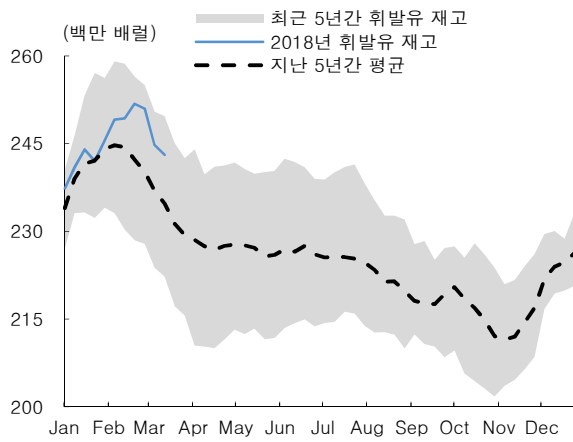
[그림 14] 미국 산유량 및 rig 수



자료: Bloomberg, EIA,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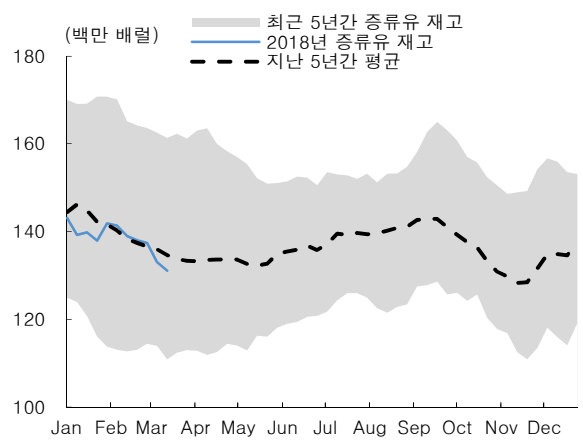


[그림 15] 미국 휘발유 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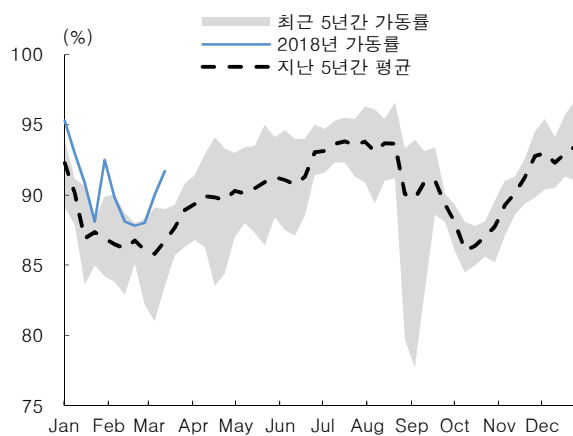
자료: EIA, 한국투자증권

[그림 16] 미국 증류유 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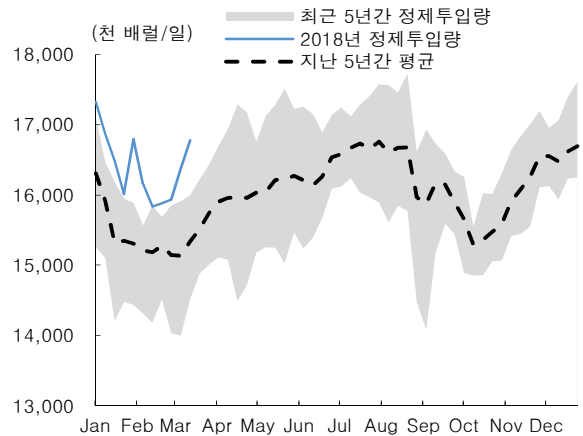
자료: EIA, 한국투자증권

[그림 17] 미국 정유시설 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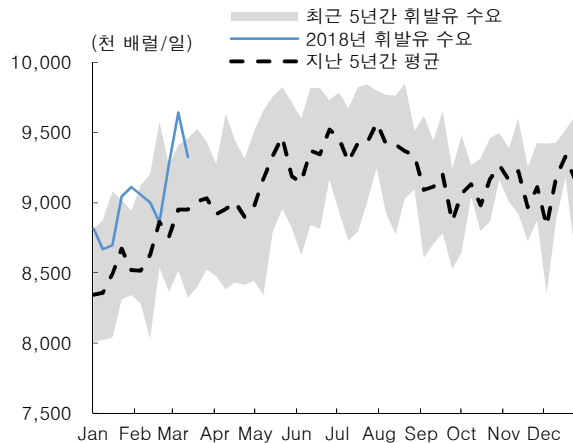
자료: EIA, 한국투자증권

[그림 18] 미국 정제투입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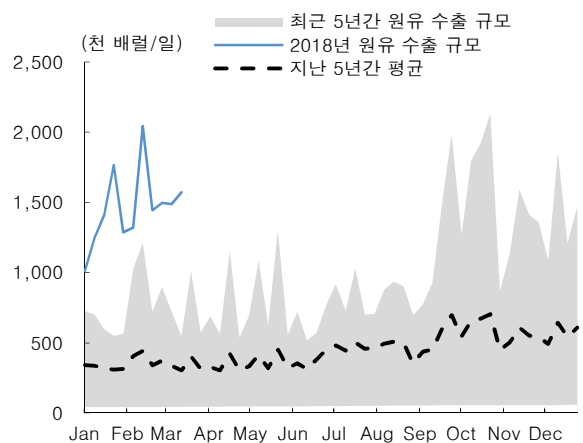
자료: EIA, 한국투자증권

[그림 19] 미국 휘발유 수요



자료: EIA, 한국투자증권

[그림 20] 미국 원유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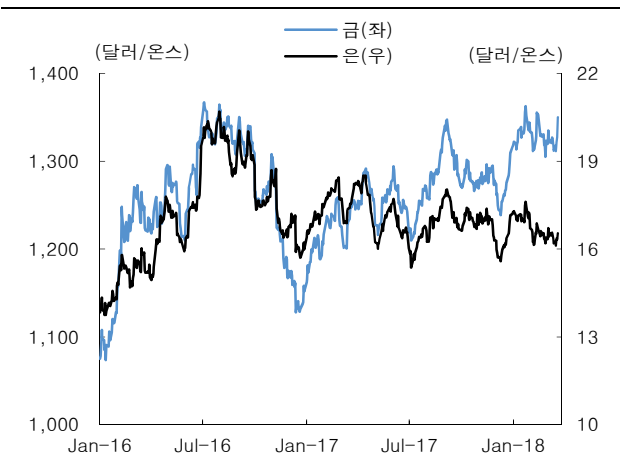
자료: EIA, 한국투자증권

### 귀금속: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강화되면서 금 가격은 상승

미 연준이 올해 금리인상 횟수를 3회로 유지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간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금 가격은 상승했다. 금(+2.9%), 은(+2.0%)은 상승세를 보인 반면 팔라듐(-1.7%), 백금(-0.2%)는 하락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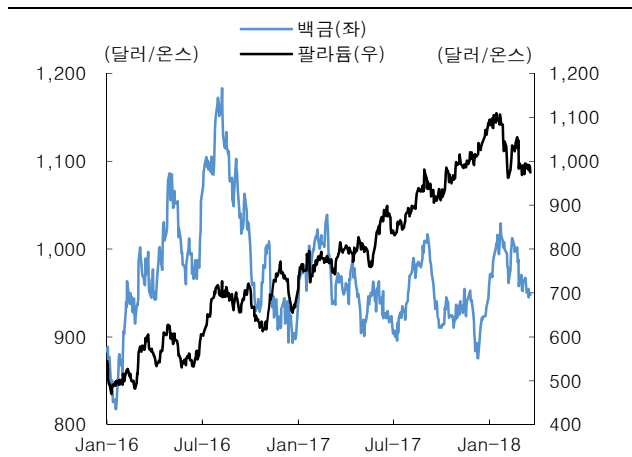
미 연준은 지난주 FOMC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했다. 점도표가 전반적으로 상향조정된 가운데 2019년과 2020년 금리인상 횟수는 기존 2회와 1회에서 각각 3회와 2회로 조정되었다. 다만 2018년은 여전히 3회 인상 전망이 유지되면서 불확실성은 해소되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500억 달러에 이르는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하고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10억 달러에 달하는 120개 품목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20억 달러에 이르는 8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게다가 중국은 미국 국채 매입을 축소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강화되었다.

[그림 21] 금, 은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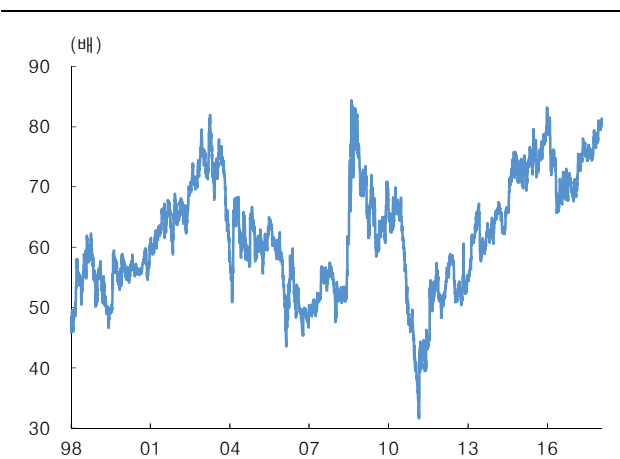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2] 백금, 팔라듐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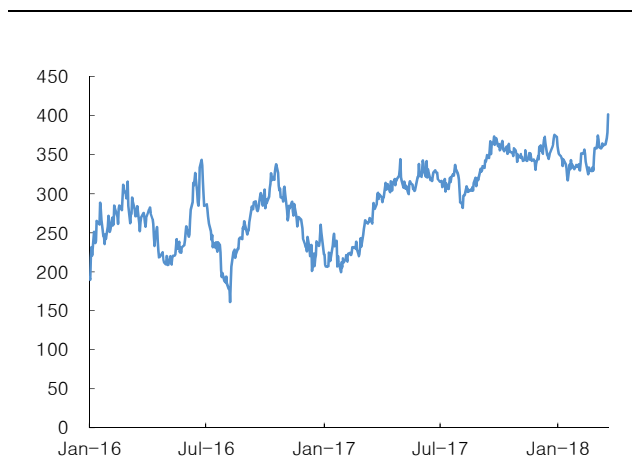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3] 금/은 rat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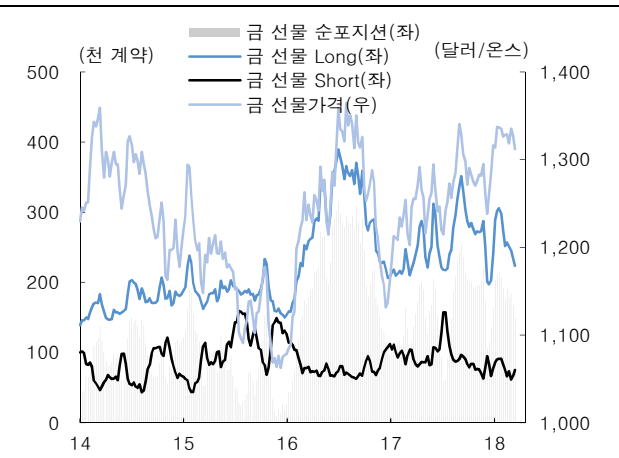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4] 금-백금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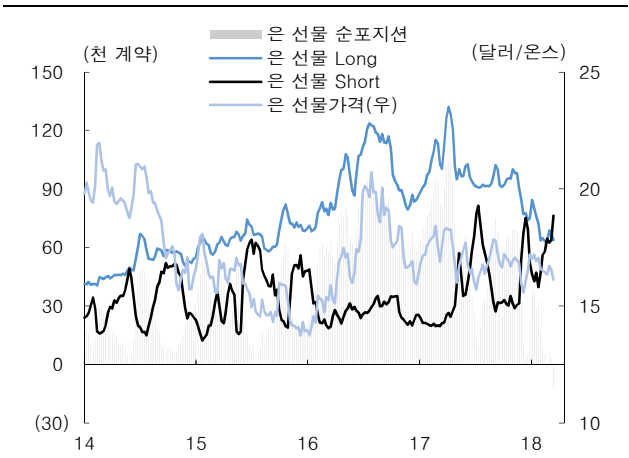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5] 금 투기 포지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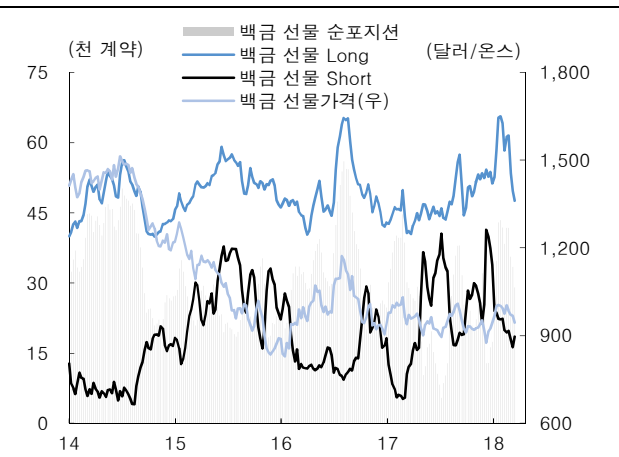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6] 은 투기 포지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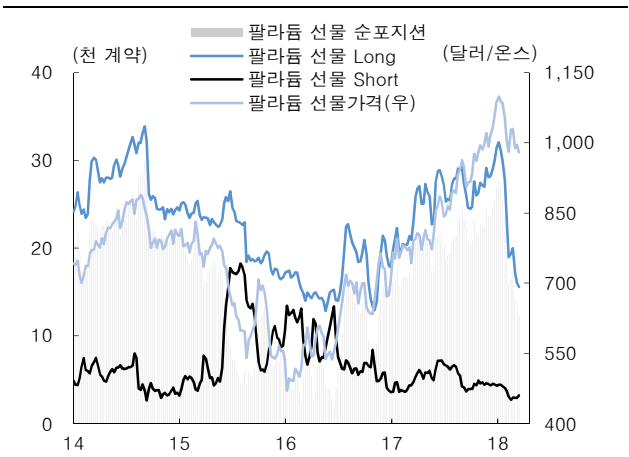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7] 백금 투기 포지션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8] 팔라듐 투기 포지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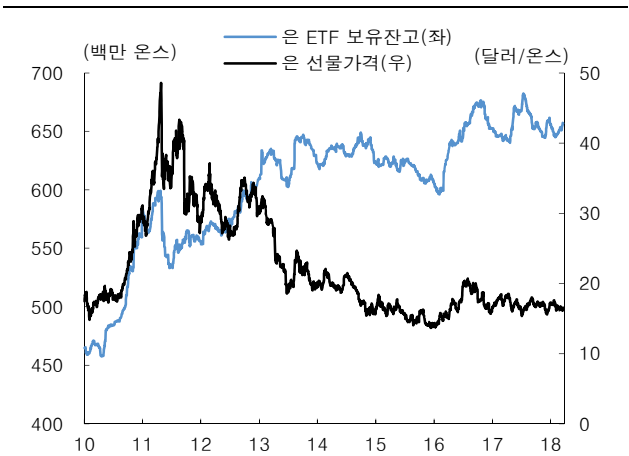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9] 금 ETF 금 보유량 및 금 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30] 은 ETF 은 보유량 및 은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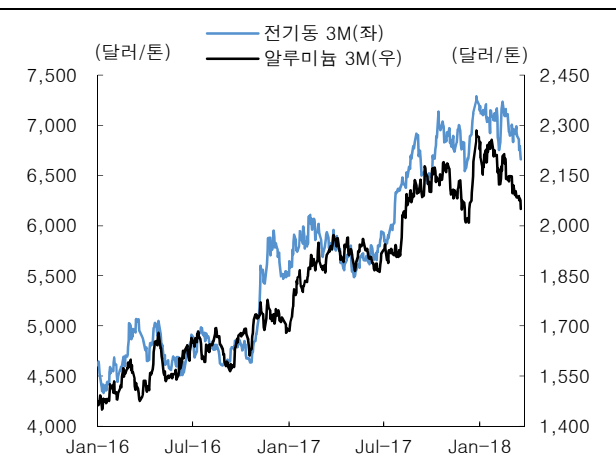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비철금속: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며 하락

달러가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며 비철금속 가격은 하락했다. 품목별로는 니켈(-5.0%), 전기동(-3.3%), 납(-1.8%), 알루미늄(-1.7%), 아연(-1.3%), 주석(-1.1%)은 하락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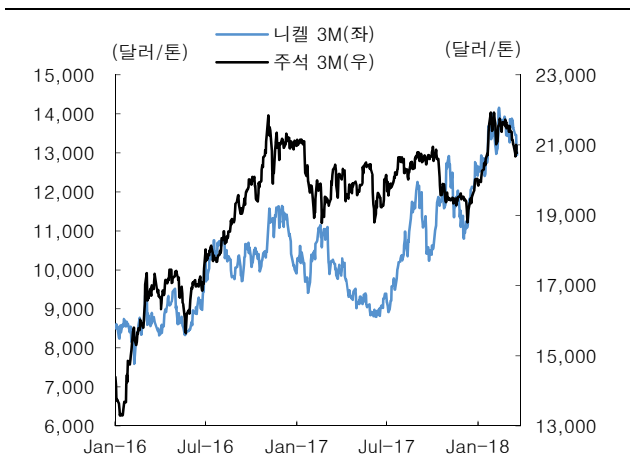
지난주 비철금속은 하락세를 보였다. 미 연준이 올해 금리인상을 3회로 유지했지만 미국과 중국간 무역 전쟁이 가시화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크게 약화되었고 수요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었다. 특히 미국 증시를 비롯해 글로벌 증시가 급락하면서 비철금속 가격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전기동 가격은 3개월래 최저치로 하락했으며 니켈 가격은 연초 이후 박스권 하단까지 하락했다. 다만 아연의 경우 출하 예정 재고가 증가하면서 낙폭이 제한적이었다.

[그림 31] 전기동, 알루미늄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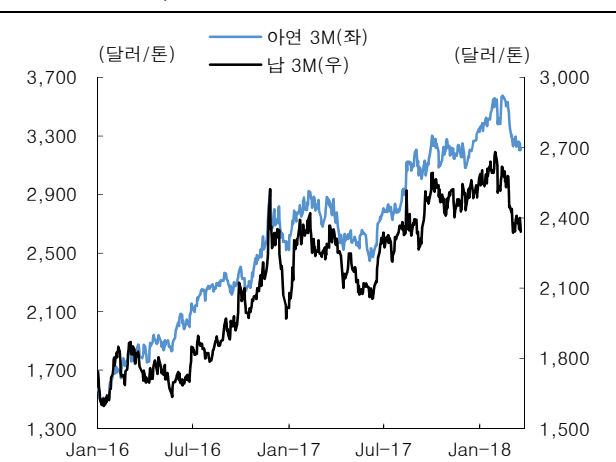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32] 니켈, 주석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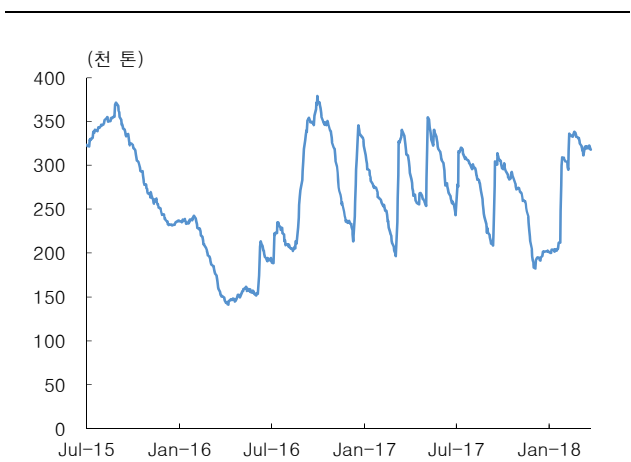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33] 아연, 납 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34] LME 전기동 재고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표 3〉 주요 원자재 ETF

구분	ETF명	시총 (백만 달러)	일평균거래대금 (백만 달러)	증가 (달러)	1W (%)	1M (%)	3M (%)	YTD (%)	기초지수	운용보수 (%)	추적 오차	레버 리지
원유	UNITED STATES OIL FUND LP	1,903	254	13.28	5.8	4.0	13.9	10.6	WTI	0.72	-	-
	IPATH S&P GSCI CRUDE OIL TR	612	13	7.46	7.8	5.2	18.8	14.1	SPGSCLTR	0.75	7.4	-
	UNITED STATES 12 MONTH OIL	85	1	22.86	5.0	4.0	12.2	9.3	WTI	0.79	-	-
	PROSHARES ULTRA BLOOMBERG	452	74	28.29	11.6	7.4	28.1	20.7	BCOMCL	0.95	26.6	Long X2
	UNITED STATES SHORT OIL FUND	10	0	51.00	-5.4	-4.1	-13.0	-10.2	WTI	0.75	-	Short X1
	PROSHARES ULTRASHORT BLOOM	199	42	19.4	-11.0	-9.0	-25.7	-21.0	BCOMCL	0.95	80.5	Short X2
	TIGER 원유선물(H)	97,035	1,218	4745	6.2	3.9	12.3	9.3	SPGSCLP	0.70	16.5	-
	TIGER 원유인버스선물(H)	7,924	151	9905	-5.8	-4.1	-12.3	-9.8	SPGSCLP	0.70	48.4	Short X1
천연가스	US NATURAL GAS FUND LP	364	118	21.68	-3.6	-2.4	3.2	-7.0	Natural Gas	1.27	-	-
	VELOCITYSHARES 3X LG NAT GAS	471	229	51.83	-10.3	-7.5	-4.5	-28.8	SPGSNGP	1.65	67.9	Long X3
	VELOCITYSHARES 3X INVERSE NA	193	193	31.33	11.0	6.0	-19.7	13.9	SPGSNGP	1.65	142.1	Short X3
석탄	VANECK VECTORS COAL ETF	92	2	15.4399	-4.7	-14.1	-2.3	-3.7	MVKOLTR	0.59	4.3	-
에너지 기업	ENERGY SELECT SECTOR SPDR	17,061	1,120	66.77	-0.8	-3.0	-7.2	-7.6	IXETR	0.13	0.5	-
	VANGUARD ENERGY ETF	3,877	33	91.5	-0.8	-2.9	-7.2	-7.5	M5US5ENI	0.10	0.3	-
	SPDR S&P OIL & GAS EXP & PR	2,346	591	34.7	0.8	0.2	-5.8	-6.7	SPSIOPTR	0.35	0.5	-
	ISHARES U.S. ENERGY ETF	949	25	36.63	-1.5	-2.8	-7.2	-7.6	DJUSENT	0.43	0.5	-
	ISHARES GLOBAL ENERGY ETF	1,143	10	33.41	-0.8	-2.8	-5.1	-6.0	SPG12CEN	0.47	1.5	-
귀금속	POWERSHARES DB PREC METALS	181	1	39.27	2.4	1.0	4.4	2.0	DBCMEPEM	0.78	1.7	-
	ETFS PHYSICAL PRECIOUS METAL	385	2	65.27	1.7	-0.2	3.0	0.4	GLTRI	0.60	6.2	-
금	SPDR GOLD SHARES	36,790	1,039	127.61	2.4	1.2	5.5	3.2	GOLDLNPM	0.40	4.1	-
	ISHARES GOLD TRUST	11,706	161	12.93	2.5	1.3	5.6	3.4	GOLDLNPM	0.25	4.1	-
	ETFS PHYSCL SWISS GOLD SHRS	1,146	7	130.18	2.9	1.2	5.6	3.2	GOLDLNPM	0.39	4.0	-
	VELOCITYSHARES 3X LONG GOLD	127	9	11.98	7.6	3.0	14.2	7.5	SPGSGCP	1.35	21.9	Long X3
	KODEX 골드선물(H)	55,944	663	9990	2.0	1.1	5.4	3.1	SPGSGCTR	0.68	6.0	-
금광업체	VANECK VECTORS GOLD MINERS	8,096	942	22.12	3.2	0.7	-3.4	-4.8	GDMNTR	0.52	3.6	-
	DIREXION DAILY GOLD MINERS	1,425	190	24.99	10.0	1.5	-17.8	-21.2	GDM	0.95	46.1	Long X3
	DIRXN DAILY JR BULL GOLD 3X	857	198	14.45	12.5	6.1	-14.5	-18.6	MVGDXJTR	0.95	49.7	Long X3
	DIREXION DAILY GOLD MINERS	183	128	25.4	-10.3	-4.3	2.6	7.2	GDM	0.95	90.5	Short X3
은	ISHARES SILVER TRUST	5,257	136	15.58	1.2	-0.1	1.2	-2.6	SLVRLN	0.50	11.0	-
	ETFS PHYSICAL SILVER SHARES	330	3	16.11	1.2	0.0	1.2	-2.5	SLVRLN	0.30	10.9	-
	PROSHARES ULTRA SILVER	229	5	31.81	2.3	-0.3	0.9	-6.0	SLVRLN	0.95	24.7	Long X2
	VELOCITYSHARES 3X LNG SILVER	273	32	10.3	3.7	-0.7	-1.4	-11.3	SPGSSIP	1.65	37.2	Long X3
	KODEX 은선물(H)	25,377	189	3845	0.0	-1.0	1.5	-2.2	SPGSSITR	0.68	9.9	-
은광업체	GLOBAL X SILVER MINERS ETF	411	4	30.57	1.9	0.4	-4.8	-6.3	SOLGLOSI	0.65	2.6	-
백금	ETFS PHYSICAL PLATINUM SHRS	537	5	90.24	-0.2	-4.8	3.1	2.0	PLTMLNPM	0.60	7.2	-
팔라듐	ETFS PHYSICAL PALLADIUM SHAR	232	3	92.79	-1.9	-6.9	-6.5	-8.6	PLDMLNPM	0.60	11.1	-
비철금속	POWERSHARES DB BASE METALS	347	5	18.06	-2.4	-6.7	-5.0	-7.0	DBCMEIM	0.82	2.2	-
	IPATH BLOOMBERG COPPER SUBIN	55	2	33.49	-4.6	-8.3	-9.2	-10.8	BCOMHGTR	0.75	2.2	-
	TIGER 구리선물	8,196	27	6975	-1.6	-3.9	-4.1	-5.2	SPGSCO	0.85	8.2	-
전기동	KODEX 구리선물(H)	5,580	83	6200	-4.0	-7.0	-6.7	-9.4	SPGCHGTR	0.68	9.9	-
	니켈	IPATH BLOOMBERG NICKEL SUBIN	14	0	15.70	-5.3	-6.4	7.4	2.0	BCOMNTR	0.75	7.6

주: TIGER, KODEX ETF의 시총, 일평균거래대금 단위는 백만원  
 자료: 한국투자증권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